

꼭 알아둬야 할 자기주도학습의 7가지 원리

1. 잘하고 싶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첫째로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렵다.

어떤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또 무슨 책으로 어떤 강의를 이용할 것 인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거시적인 전략이나 매일의 공부에서 기술이라 할 전술도 갖춰야 한다. 특히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평가능력이다. 이하에서는 학습적 원리와 연관이 많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아보기로 한다.

2. 계획을 짜야 공부하고 싶어진다

학습을 위한 출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치적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 짜기다. 공부하고 싶을 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야 공부하고 싶어진다. 계획은 크게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의 4종류가 있다.

· 일일 계획

공부가 잘되는 시간에 취약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과목과 교재, 그리고 분량단위로 계획을 짜되, 문제풀이 공부 시에는 문제당 시간을 시험 때와 같이 설정하고 문제 개수에 따라 공부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중학생은 학기 중 하루 3시간, 고등학생은 하루 4~5시간이라는 최소 자기 공부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학원에 많이 다니는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하루 2시간 미만임을 감안할 때 학원 강의 수강으로 소진하는 시간을 없애야만 제대로 된 일일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다.

· 주간 계획

6일치를 짜다. 7일치 계획을 짜면 마음은 뿌듯하겠지만 실천은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일정 정도의 여유분 없이 계획을 짜면 실천이 어려워진다. 일요일에는 하루 정해진 분량을 다했을 경우 쉬고, 못했을 경우 보충한다. 6일 계획은 보통 시험 준비기간이 아닌 때를 가정할 때 '영수국/영수사/영수과/영수국/영수사/영수과'의 과목 배치를 하는 것이 고민을 더는 지름길이다. 중학생은 각각 1시간씩 하고 고등학생은 수학에 3시간, 나머지 과목에 1시간씩을 배치한다.

· 월간 계획

주로 시험 대비기간을 위해 짜다(한 달은 4주라고 가정). 시험 전 4주차에는 평소 영어, 수학위주의 공부패턴을 유지하되, 시험기간에 이 둘의 과목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실력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 3주차에는 국영수 위주로 시험 대비모드로 돌입한다.

교과서와 자습서, 문제집, 학교 수업내용 등을 위주로 공부한다는 뜻이다. 2주차에는 사회와 과학 계열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되 국영수 과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고, 다했다면 복습을 병행한다. 1주차에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초기 3일은 그동안 못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충하는 기간이다. 나머지 4일은 시험 보는 과목들의 순서와 역순으로 공부하면서 마무리한다. 시험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최종 반복을 위한 버려치기는 놓치지 않는다.

·연간 계획

주로 장기간에 걸쳐 이번 학기 또는 올해에 어떤 것을 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지 후행학습을 해야 하는지, 영어 문법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하는지 등,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계획도 함께 있어야만 나중에 방향을 잃고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3. 뚜렷한 목적성을 가져라

백지에 내가 어제 외운 영어단어를 과연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써보자. 어제 공부한 과학 실험을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써보자. 어제 풀어본 수학 문제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 정해서 풀어보자.

이때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한 것이다. 목적성이란 이렇게 '능동적 자기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제대로 답하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의식을 말한다. 지금 외우는 단어가 내일 자기평가 때 30% 이상 답할 수 있도록 외우려는 학생과 그냥 열심히 외우려는 학생과는 목적성 자체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가 지루함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곧 자기평가능력이 좋은 것이며 많은 상위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4. '이해'부터 '문제해결'까지 5원칙을 준수하라

과목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5개의 원칙이 있다. 바로 이해하기-사고하기-정리하기-암기하기-문제해결하기다. 이 중에서 요새 학생들이 지나친 학원 교육에 젖어들면서 기피하는 부분이 이해와 사고이다. 이해와 사고 부분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과정을 등한시하고 문제 풀고 외우는 데에만 집착해서 득점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많아지고 문제유형이 다양화되며 높은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는 고등 학교 학습에서는 더 이상 먹이지 않는다. 이제 부터라도 내용에 대한 이해와 사고 쪽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5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공부를 하자.

5. 예습-복습-수업 '기본'에 충실하라

해마다 수능 전국 수석의 인터뷰는 수많은 일반 학생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저런 소리는 나도 하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수능 수석한 학생이 어느 학원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아마 전국에서 '예습-복습-수업'이라는 기본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보통 학생들에게 예습을 하라고 책을 주면 학생들이 보통 하는 일은 그냥 읽기다. 그러나 그냥 읽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습은 책을 읽고 나서 '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알고 싶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예습은 '다 알려고' 한다기 보다 '뭔가 있다'를 알기 위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다음은 수업 듣기다. 수업시간에 수업 듣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간 사용은 없다.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갖기 위한 예습이 전제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예습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특히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필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수업 내용을 가능한 빠짐 없이 핵심 위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생각하는 필기를 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런 마음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 가능케 한다. 복습은 예습과 수업듣기로부터 너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그 주에 배운 내용은 그 주에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복습은 반복이 생명이며 망각을 방지하려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반복만이 살길이다.

6. 학습의 입력·출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요새 학생들의 공부를 관찰하면 입력과 출력 모든 부분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공부에서 입력이라고 하면 수업을 듣고 스스로 익히는 과정을 뜻한다. 출력이라 하면 사실 시험을 보는 것인데 이를 대비하려고 문제를 풀고 공부한 내용을 자기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첫째로 입력에서 부조화가 생긴다. 수업만 많이 듣고 스스로 익히는 과정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배운 내용이 머리 주변에서 맴돌지만 머릿속으로 익혀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입력 부조화다. 두 번째로 출력부조화다. 문제집은 푸는데 정작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설명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 그냥 문제만 풀어서 맞추면 출력 연습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험 보는 출력이 문제풀이 방식이고 평소 출력 연습도 문제풀이 방식에 그친다면 연습과 실전이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즉, 문제만 푸는 소극적 출력뿐만 아니라 내용을 백지에 설명하는 적극적 출력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보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7. 국어·영어·수학 과목별 학습법을 적용해 보자

· 국어

대부분 학생들에게 국어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다. 그러나 국어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습서 내용 옮겨 적기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습서와 비교한 후 옮겨 적기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냥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글이나 장르의 핵심 사항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습서의 생각과 비교한 후 정리된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 놓고 수업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력을 길러주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언어영역에서도 처음 보는 지문을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힘을 길러준다.

· 영어

영어 공부는 문법/단어/독해/듣기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쓰기나 말하기는 표현하기이므로 제외한다). 이 중에서 문법이 가장 골치 아픈 영역이다. 문법은 구조적이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 많다. 따라서 어느 형태든 강의를 병행하고, 철저히 연습을 해야 한다. 수업시간 필기는 필수다. 듣고 써온 내용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외워야 한다.

특히 영문법은 '선암기 후이해'다. 단지 문법 설명뿐만 아니라 예문도 함께 외우는 것이 좋다.

· 수학

수학은 우선 정의나 정리를 그대로 말하거나 공식을 유도 혹은 증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차함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일차함수 내용도 설명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일차함수의 정의가 뭐고 기울기가 뭐고 절편이 뭐고 평행이동 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시험지나 연습장에 잘 정리하면서 푸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시험시간에 흥분해서 엉망으로 푼다면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공식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는 문제의 풀이 유형이나 항상 틀려서 자신 없는 문제의 풀이과정 등도 암기의 대상이다.

수학 과목은 암기가 아니지만 수학시험은 암기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리다. 마지막으로 문제풀기인데 문제를 풀 때는 한 문제당 몇 분을 사용해서 골 건지 정해야 한다. 또 난이도에 따라 별표를 구분해서 쳐 뚫으면서 취약문제를 구별하고 완성도 있게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답을 보기 전에는 충분히 길게가 아니라 충분히 여러 번(한 문제 안 풀린다고 한 시간 고민하기 보다 15분씩 네 번 고민하는 것이 좋다) 고민해보고 난 후 하도록 한다.

또 답을 볼 때는 한 문제 답보고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답을 미리 보았다가 그날 진도를 다 나간 후 풀어보자. 그래야 답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힌트만 생각해서 자기가 풀어보게 되는 셈이고 실력이 는다.